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경강림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7. 주여 우리 무리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살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또 많이 일했지만, 많은 것을 게을리 하기도 했습니다. 노력했으나 끝마치지 못한 일도 많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에 매여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 내놓사오니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빈들의 마른풀처럼 생기를 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무력해진 것들에는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해가 환히 빛난다 해도, 주님의 빛이 없으면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60:19-20 .....	인도자
♠ 교 독 문 .....	63. 성령강림절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조관행 집사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73. 불길 같은 성신여 .....	다함께
성경봉독 .....	I. 행19:1-7 .....	인도자
	II. 요16:7-15 .....	홍순구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	김재흥 목사
	II. 보혜사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265.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일상이 분주하다 하여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낮추고, 더 많이 섬기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온갖 정성을 다해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일상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정과 짐착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까지의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사람이 되어,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심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회회 모임	에베소 강해(7)
아름답도다, 성도의 사귀!	기도 : 윤주원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인도자 방문성 장로	인도자 안길상 권사

5월	영접위원	김철수 이호원 오진훈 조병주 백혜숙 박시내
	헌금위원	한완식 김중수 윤주원 김애경 이기분 이순정

## 영원의 저 동산에는

● 날마다 교회로 날아오는 우편물이 적지 않습니다. 보낸 이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우편물은 개봉도 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그 중에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보내오는 결혼식 청첩장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내는 건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 닭 보듯 멀뚱멀뚱 나를 대하던 이가 느닷없이 절기 카드라도 보내오면, 내 비록 눈치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쯤은 대뜸 알아차립니다.

매일같이 사무실에 쌓이는 우편물 가운데 대부분이 쓰레기통 행임을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뒤적여봅니다. 어찌다가 낯익은 이름, 낯익은 필체가 눈에 띄면 객지에서 삼촌을 만난 듯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편물을 쓰레기통에 던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앞에는 두 통의 초대장이 놓여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평화와 따뜻함과 겸손과 섬김의 길을 함께 걷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초대장이고, 다른 하나는 늘 걸던 익숙한 길로 오라는 욕망으로부터의 초대장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은 성숙을 향한 여행길의 흥미로운 첫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초대장을 손에 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희망이란 어둠 속으로 손을 뻗어 한 줌의 빛을 들고 나오는 용기와 대범함입니다.

● 영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아이들도 좀 어리숙해 보이는 아이들이 예뻐 보입니다. 소설가 구효서의 아들도 좀 어리숙한가 봅니다. 그런 아이가 학교에서 회장이 되었던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다른 한편으론 대견하기도 했겠지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라도 할까 싶어, 쉬는 시간에 부회장에게 물어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꼭 알아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벌써 아이가 학교에 도착할만한 시간이 됐는데 현관 벨이 울리더니, 아이가 혈레혈레 집으로 뛰어 들어

와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쟤 시간 끝나고 물어봐?”

아이고, 어머니 속이 좀 탔겠지요. ‘이렇게 고지식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 것인가’. 하지만 이런 어리숙함이 예뻐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던 이춘희 집사님이 어린 조카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그 아이는 전화 받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전화를 받는 방식은 여느 사람과 사뭇 다릅니다. “여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반 ○○○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지요? 그런데 누구세요?” 끝내주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이 대목에서 나는 그만 녹고 말았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아이는 기쁨의 햇살 한줄을 흠뻑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 아니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 지난 5월 11일은 시인 구상(具常, 1919-2004)님이 하늘로 돌아간 날입니다. 그가 남긴 시들을 찬찬히 살펴다가 <우음偶吟>(\*얼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음)이라는 시 하나가 마음에 그윽이 흘러들었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에 살다  
사랑을 안고  
죽는 이는  
참으로 행복하거니

그 이별의 슬픔도  
사랑 속에서만은  
아름답게 빛나고  
길이길이 남고

그리고  
영원의 저 동산에는  
사랑의 그 꽃이 피리.

마지막에 굳게 찍힌 마침표 하나가 그의 엄결(廉潔)한 신심을 말해주는 듯싶어,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앉았습니다.(석)

## 말에 관한 상념

언젠가 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너 잘 쓰는 말이 뭔지 아나?”

“몰라. 글썸. 잘 모르겠는데...”

“어이구, 너 제일 잘 쓰는 말이 바로 ‘몰라’야. 그 말을 하면서 하늘을 한번 보지.”

“그런가?”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유진규 선생은 참 ‘몰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군.”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무심코 넘어갔는데,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럴까 곱씹어보게 되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시간을 갖고 싶은 내 마음이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나는 그 잠깐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골라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뱉고 나서 정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시선이나 요구에 따라, 혹은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내 마음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변질된 말이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단 한 마디라도 오로지 ‘나’ 자체인 말, 그래서 내 마음이 그대로 옮겨지는 말, 시간이 지나도 진실로 남을 수 있는 말이 되길 나는 매일같이 훈련한다.

이제 나는 내 안에서 말이 생겨날 때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듯 내 말이 심연의 침묵 안에서 고르고 골라낸 것이기를. 그리고 내게 전해지는 누군가의 말 또한 그런 것이기를.

(유진규, 《말하지 않기에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중에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이한림 김명희 이광용 형인순 박규석 박경선 박애순  
윤수진 박옥순 안정숙 김훈동 노용래 차혜심 문홍일

### 월정헌금:

정진경 허광식 표명화 김홍기 조병주 이정은 이봉배 송의섭 김정섭  
노미향 박상규

### 감사헌금:

양재성 임미심 정두리 이인웅 안정숙 장재영 김재영 이정은 김창원  
정지은 김수빈 이동천가족

생일감사헌금: 백혜숙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차혜심	박영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박홍엽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임정자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곽혜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박옥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김춘려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장혜숙	이순정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이명희	박현우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김시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배삼순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주일** :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교회와 삶터에 충만하시길 빕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야외예배** : 다음 주일(22일)은 온 교우가 야외로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올림픽 공원에 있는 <피크닉 가든>입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8시 30분에 시작하는 1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사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심방** : 수요일 - 안디옥 속 목요일 - 엠마오 속
6.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장영숙 전도사님이 중심이 되어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7. **지방성회** : 웨슬리 회심 267주년을 기념하여 중구용산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성회가 22일 저녁부터 25일(수) 저녁까지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 오전에 안내를 맡았습니다.
8. **신앙실천** :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스승님을 찾아뵙거나, 정감 있는 편지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 헌화 : 장재영 집사 김재영 집사 (결혼기념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